

글로벌 인재양성 위한 플랫폼 구축

전북대, 말레이시아 주요 대학과 학술교류 협약 체결... 학생 파견·공동 연구 등 지속 협력키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말레이시아 소재 대학과 학술교류협약을 체결, 아시아 대학 간 학술교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대는 지난 25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말라야대학(Universiti Malaya), 푸트라자야에 있는 푸트라말레이시아 대학(Universiti Putra Malaysia)과 기본협정(MOU) 및 세부협정(MOA)을 각각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 대학 교육연합(AUEA)'을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구체화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대학은 학생 파견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를 통해 연구비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기로



전북대가 지난 25일 말레이시아 주요 대학과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김동원 총장은 AUEA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에 파견돼 학업을어나가고 있는 전북대 학생 30여 명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학생

들을 격려하며 대학을 대표해 열심히 연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말라야대학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로 말레이시아 최초로 의과대학을 설립했으

며, 푸트라 말레이시아대학은 농과대학이 특화돼 있어 앞으로 농생명과학분야의 활발한 연구교류가 기대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정부 대입제도개선안, 문제 분석부터 잘못”

김승환 교육감, “정시 확대... 교육기득권에게 유리한 결정” 비판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문제 파악부터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2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교육에 관한 이슈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면서 “대입 공정성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 부분이었다. 이 영역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보력 차이가 작용한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수 학생들과는 무관한 세계의 일이며, 정시비율 확대는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일시 불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잘못된 해결책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정시 확대라는 정부 결정이 교육기득권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정시모집 확대에 웃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 특정 지역, 특정 유형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유리한 조치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한 뒤 “현 정부는 교육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교육정책 결정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대통령이 21일 수능 정시 비율 상향 조정을 언급하고, 교육부가 25일에 대입개선안을 발표했다면서 시설 공사에 비유한다면 날림도 이런 날림이 없을 것”이라면서 “도교육청도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지 않느냐며 변명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꿈마중 진로진학 festival’ 개최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오늘 화산체육관에서 2019 전주 꿈마중 진로·진학 festival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교 학생, 교원 및 학부모 등 3천여명이 참여해 미래지향적 진로선택을 위한 진로체험과 고입을 위한 진로진학 상담을 위해 마련됐다.

“즐거우고! 꿈꾸고! 도전하고! GO~

GO~”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자유학기제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된 우수 진로동아리(13개교)와 마을공동체 및 진로프로그램 체험기관(24개 기관)이 참여해 미래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진로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아울러 고입 진로진학상담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28개교)가 참여해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선정 결과 발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0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선정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공고에 따라 총 79개 사업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익산여성의 전화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익산기념식’ 등 총 60개 사업(9억 2,388만원)이 선정됐다.

이번 심사는 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진행했으며, 전문성 및

책임성, 사업의 독창성, 예산 구성항목의 구체성 및 적절성 등이 심사 기준이었다. 내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은 전북도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12월중 최종 확정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조금 공모사업을 통한 민간단체들의 다양한 공익 사업으로 전북교육과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가 국립대 육성사업을 통한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목공체험으로 ‘따뜻한 동행’

전북대, 내년 2월까지 좌탁 만들기 진행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국립대 육성사업을 통한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목공체험은 전북대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대학과 지역민이 호흡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과 따뜻하게 동행하는 대학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다.

매년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목공체험을 운영해 왔던 전북대 목재 가공지원센터가 일천대학에서 전하는 목재감성이라는 부제를 달고 내년 2월까지 지역민의 접수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체험은 유아·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일반부 등 3개 분야

로 나눠 실시되며, 전북대 인·물적 인프라가 동원돼 좌탁을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번 목공체험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전북대 목재가공지원센터로 전화(063-270-2593)나 이메일(rikd4321@hanmail.net)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양수 전북대 목재가공지원센터장은 “전북대가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기 위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목공체험 기회의 장을 넓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우리대학이 갖추고 있는 목재 가공 분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민과도 따뜻하게 동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도교육청, 오늘 초등 교육 나눔의 날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교육 실천사례 나눔을 통해 초등교사의 성장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부터 전주N타워 4층 스텔라홀에서 초등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150여 명을 대

상으로 초등교육 교육과정, 수업, 초등성장평가제, 기초학력 등 분야별 실천 사례를 나누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1부는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등교사, 다시 나를 돌아보다’를

주제로 4명의 교사가 교육과정·수업·초등성장평가제·기초학력 등 영역별로 실천해 온 이야기를 소개한다.

2부에서는 멘토와 함께 ‘여기서 함께, 다시 우리를 돌아보다’를 주제로 20개 분임에서 원탁 토의를 진행한다. 참석 교원이 추천한 현장 멘토강사와 함께 참가교원이 희망한 주제별 이야기 나눔으로 이뤄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교육 전반에 걸친 실천 나눔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나눔을 통한 교사의 성장을 지원해 수업 전문성을 신장하게 될 것”이라며 “교사의 자발적 실천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홀로그램기술 포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을 선도할 홀로그램기술 관련 국내 산학관연 전문가 포럼 및 홀로그램 예타사업 안내 및 설명회를 겸한 2019 홀로그램기술 활용포럼을 개최했다.

2019 대한민국 홀로그램 엑스포 주

요 행사 중 하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지난 25일 교내 숭산기념관에서 진행됐으며, 홀로그램 예타사업 안내 및 홀로그램 기술에 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원광대 가족회사를 비롯한 산학관연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익산시가 홀로그램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최근 홀로그램 융합기술의 현황과 전망, 표준화 동향,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및 연구개발 동향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국내 산·학·연 전문가 강연과 국내 산·학·연 전문가 강연과 국내 산·학·연 전문가 강연과 국내 산·학·연 전문가 강연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특히 박맹수 총장과 송문규 홀로그램기술융복합연구소장 등 학교 관계

자를 비롯해 우범기 전라북도 부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이춘석 국회의원, 국내 홀로그램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번 포럼을 통해 익산시가 홀로그램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광대 홀로그램기술융복합연구소의 중추적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향후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